

「100인 장학위원회」의 지역 상생 효과

「100인 장학위원회」가 회원들에게 주는 보람

- 자신이 수혜자를 선택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인재를 기르는 소중한 보람
- 10년 1구좌(100만원)이상으로, 근검절약을 실천하며 즐겁게 인재를 기르는 교육 문화 확산에 기여
- 파주 시민이 파주 대학을 스스로 가꾼다는 의식 확산
- 간접비용 없이(학교가 행정비용 부담) 학생들에게 온전히 장학 혜택 부여

※ 「100인 장학위원회」 회원에 대한 혜택

- 회원기념 동판제작 부착 - 명절 카드, 선물
- 임명장, 명함 - 세무 등 자문
- 홈페이지에 명단 수록
- 학교 시설 이용(100인 장학위원회 사무실, 전화번호 등)

「100인 장학위원회」의 기대효과

투명한 장학 제도 정착

- 기존 장학재단은 기부자가 대학발전기금을 내면서 사용 목적을 지정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자신의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불투명.
- 「100인 장학위원회」는 자신의 명의로 후원하면서 학생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투명한 제도로서 '장학 사업'이 아닌 '장학 교육'의 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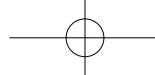
파주 시민이 시작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 조성

- 기부자가 장학금 수혜자에게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면 10년 간 최소 10명의 학생을 후원 가능
- 연 2회 장학금 지원 현황 등 보고회를 계기로 장학금 수혜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 회원들에게는 자긍심,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장학 교육의 문화 확산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응지로 144번길 73 응지세무대학교

담 당 기 획 처 031-940-3173 / 대외협력처 031-940-3151 / 사 무 처 031-940-3133



100인 장학위원회

장학교육의 씨앗을 뿌리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와 민족 동란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한 나라의 근간이자, 미래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주는 남북을 굽이쳐 흐르는 임진강의 숨결과 함께 문화예술, 첨단산업과 교육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위대한 선현인 율곡 이이와 방촌 황희, 우계 성혼 선생의 얼이 살아있고, 출판도시와 예술 마을 헤이리, 첨단 LCD단지가 어우러진 미래교육의 산실이자, 한반도 평화수도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파주에 최초로 대학 교육의 뿌리를 내린 응지세무대학교는 '글로벌 시대를 리드하는 회계·세무 전문 인력 양성의 건학이념을 살려 그동안 국내 최고 최대 회계·세무 인력을 배출해 왔습니다. 파주를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서 응지세무대학교의 더 큰 응비와 함께 '장학교육의 씨를 키워가기 위해 <100인 장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100명의 위원들께서 매년 100만원(1구좌, 10년간) 이상의 장학금을 기부함으로써 파주교육의 백년대계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100인 장학위원회>는 장학 사업이기 전에 장학 교육을 지향합니다. 응지세무대학교에서 선발된 장학생이 사회에 나가 자신들도 장학금 수여 주체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새로운 미래 교육을 위한 <100인 장학위원회>에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이루며 나라의 동량지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0인 장학위원회>가 늘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100인 장학위원회」 설립 취지

「파주 시민과 학교가 함께하는 「100인 장학위원회(Hundred Members Scholarship Committee: HMSC)」 설립

-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이란 족쇄가 채워져 정부의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는 여건 마련
- 파주 시민 스스로 파주에 본교를 둔 유일한 대학인 응지세무대학교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장학프로그램

「학교는 100인 위원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뜻이 그분들 명의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

- 「100인 장학위원회」는 국내 최초로 '장학사업'이 아닌 '장학교육'의 일환으로 추진

「100인 장학위원회」 명칭의 의미

「100인의 의미

- 교육은 백년대계
- 100이란 숫자는 통상 대표성을 지니며 많지도 작지도 않지만 전국적 확산이 가능한 수로 인식 가능

「장학

- 장학 '사업'을 '교육'과 '문화'로 전환
- 작은 정성을 큰 비전으로 승화하여 교육 살리기
- 교육, 문화의 성격으로 '장학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

「100인 장학위원회」 기본 원칙

「개인당 1구좌(100만원) 이상을 10년간 약정

「최대 100명 회원제로 운영

「개인 명의로 장학금 지급

「파주 시민과 학교 관계자가 함께하는 자발적인 운영